

박영재 교수의 침단 과학과 불교



그림 · 문병성

'불교 가장 과학적' 편견 버리기

우리는 지금까지 흔히 불교가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는 것을 내세울 때 중세 기독교에서 주장하던 지구 중심의 천동설과 16세기 혁신적인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과의 충돌을 내세우며 논지를 전개해 가는 글을 접해왔다. 한편 과학의 진보를 통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동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을 들어 불교가 우월한 종교라는 편견은 버릴 때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독자 분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들을 좀더 냉철하게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였다. 비유를 들면 야구 경기의 규칙을 전혀 모르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중법이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하다가 험살 당해 죽었다'라는 야구 경기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옛날 로마 시대 검투사들의 경기를 연상하며, 야구는

목숨을 걸고 하는 매우 잔인한 경기로 오인할 것이다. 사실 많은 불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접지 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 역으로 접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같은 이유로 오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는 불교 안에서조차 각 종파 아니, 범위를 더 좁혀 각 문중 사이에도 철저한 수행을 통해 내려 놓아야 할 우월이라는 이원적 분별과 편견 속에 적지 않은 오해가 있음을 언론 매체나 글들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중세 기독교의 4원소설(우주의 구성원소는 흙, 물, 불, 공기라는 학설)이나 지구 중심의 천동설은 다만 고대 그리스 문명을 계승한 것이지 성경 해석으로부터 확립된 교리적 차원에서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덧붙여 얼마 전 3인 둘째가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을 보고 돌아왔는데

전교에서 항상 1등을 하는 독실한(?) 개신교 친구가 자기에게, "시험 접답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진화론이라고 답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창조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접수가 짝일 줄을 알지만 창조론이라고 답했다"라고 했다고 필자에게 전한 적이 있다.

한 계획을 세우고 당시 최고의 엘리트 학자 신부인 예수회 소속 마테오 리치 신부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그는 관측천문학이라는 당시의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중국에 도착해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우선 유생들에게 서양의 우수한 과학을 알릴 것으로서 가톨릭에 대하여도 참 진리의 종교라 생각할 것으로 믿었다. 당시까지 중국에서는 오늘날 불교

가톨릭 천문학 이용 16세기말 中상륙 당시 동양사상 침단과학 앞에 맥 못췌

인들이 가장 과학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교가 유교와 더불어 중국사회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천문학 서적에 의거해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방형이며 세상 만물은 화, 수, 목, 금, 토 다섯 개의 원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천문학은 길흉을 점치는 점성학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불교인들은 나한(羅漢)이 오른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왼손으로 달을 가

릴 때 월식이 생기는 것이라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치 신부는 찾아오는 사대부들에게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지구는 둥글며 자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흥취감(欽天監: 오늘날의 천문대)의 예보다 더 정확히 일식을 예측하는 등 천체의 운행에 관해 정확히 예견하자 리치 신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회 신부가 흥취감의 대장이 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로는 종교와 과학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당시의 첨단과학이었던 천문학을 도구로 편직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예수회 신부가 중국 땅을 밟은 지 150년 만에 드디어 천자를 직접 알현하고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만 보면 동양 사상은 침단과학(천문학) 앞에 맥을 못추었으며 당시 지식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적지 않은 사대부들에게 가톨릭이 동양 사상보다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보았던 환원주의적인 서양과학이 파생시킨 인간소의, 환경오염, 생명윤리 등 문제점들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종교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ipark@ccs.sogang.ac.kr



남성영역에 우먼파워 우뚝

월드컵과 여성

월드컵 기간 동안 거리 응원을 위해 서울 광화문에 모여든 '붉은 악마' 중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었다. 또한 한국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 회원 11만명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응원뿐만이 아니다. 월드컵 열기를 타고 서울 은평여자축구단은 최근 2주 만에 회원이 50%가량 늘었고 전국 30여개의 '아름다 축구단'에 가입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경기 내내 선수와 공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부딪치는 축구는 '남성의 운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경기 관람은 물론, 거리응원을 통해 남성만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축구 마당에 여성들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흔히 21세기를 여성의 시대, 남녀평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남성들의 배타적 우월 의식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세속에서의 현실일 뿐, 불법에서는 원래 차별이 없다고 가르친다. 월드컵을 통해 나타난 여성들의 열정과 용기는 월드컵 축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중일야행>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시실 때, 어느날 수행하고 있는 소마 비구니 앞에 마왕 파손이 나타나 말했다.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여자의 몸으로는 능히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소마 비구니는 계송으로 대답했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자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누구라도 지혜를 얻게 되면 위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 <소미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1. Announcement of the Imminent Birth
This illustrates the Buddha who was waiting in Tushita heaven, entering the womb of Maya, who would become his mother. It depicts Maya's pregnancy-foretelling dream. Shakyamuni Buddha is descending from heaven to earth riding an elephant under the escort of heavenly being.

이 장면은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어머니가 될 마야부인에게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마야부인의 태몽을 그린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는 하늘에서 코끼리를 타고 천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땅으로 내려온다.

2. The Birth
This illustrates the baby being born in Lumbini Park, he emerges from the right side of his mother who is standing upright and holding a branch of a fig tree.

이 장면은 룸비니동산에서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는 무릎과나무 가지를 붙잡고 서 있던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어났다.

면, 물결이 일렁이든 일렁이지 않은 물은 항상 그대로 물일 뿐이다. 그런데 물결이 일렁이지 않는다면 물결도 없지만 물의 존재를 알 수도 없다. 물결의 일렁임을 통하여 물의 존재도 알려지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지금 여기의 식에서 보이고 들리고 생각되고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각각의 인연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본다면 모두 무상하게 변화하는 허망한 것들이다. 그러나 모양과 상관없이 인연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움직임을 통하여 법성(法性)의 존재가 알려진다. 즉 법성의 체현은 의식의 움직임 속에서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체현은 의식 위에서 알려지는 모양을 갖춘 알을 알이 아니다. 이 체현은 물결의 표면에서 문득 물 속으로 잠입해 들어가 물결을 잊고 물의 존재를 경험하듯이, 의식의 표면에서 문득 의식의 내면으로 잠입해 들어가 의식의 모양을 잊고 의식의 바탕인 법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①

물결을 잊고 물을 경험하라

바닥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있는 것이 누워서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부 중생의 뒤집어진 견해이다. 범부 중생의 견해가 뒤집어져 있다는 것은, 그 견해가 전부 모양을 따라

서 확고부동하게 머물러 의지할 수가 없는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스쳐지나가는 무상한 모양을 의식 위에서 허상으로서 고정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온갖 부조리와 번뇌가 생겨난다.

는 인연이 물결과 같다고 하면, 바른 견해는 물결의 허망한 모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일렁이는 물의 입장에서 인연 따라 일렁이고 있을 뿐이다. 물결의 모양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일렁이는 물은 곧 일렁이지 않는 것이다.

의식 내면에 들어 법성 경험

가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양, 들리는 모양, 느껴지는 모양, 부딪히는 모양, 생각되는 모양을 따라서 의식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범부 중생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모양은 의식 위에서 순간순간 생멸하며 스쳐 지나가는 현상으로

그러면 바른 견해는 어떤 것인가? 바른 견해에는 어떤 고정된 내용이 없다. 다만 순간순간 나타나는 인연의 허망한 모양에 따라가지 않고, 그렇기 나타나는 인연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고 저절로 응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모양 잊

일렁이는 물결의 입장에서 보면 물도 일렁이는 것이지만, 물결을 떠난 물의 입장에서 물은 그냥 물일 뿐 일렁임과는 상관이 없다. 즉 인연을 따라 일렁이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물결에 매이지 않고 오직 물의 입장에서 있다

제 5회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

귀의삼보하옵고, 전국강원연합회에서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 5회 전강원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 일시 : 2002년 7월 12일(금) · 13일(토)
- ▷ 장소 : 중앙승가대학교 대강당 · 지예관
- ▷ 주최 : 전국강원연합
-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교육원, 강원교직자협의회, 중앙승가대학교, 해인사강원총동문회, 현대불교, 불교텔레비전 btn, 불교방송, 불교신문

- 7월 12일(금) -

제 1부 개회식 (오후 1:00 ~ 1:30)

- 삼귀의 인사말
- 격려사 : 무비스님(교육원장)
- 축사 : 법장스님(전강원 상임고문, 수덕사주지), 지오스님(강원교직자협의회장, 해인사 강주)

제 2부 공동주제발표 (오후 1:30 ~ 3:00)

- 제1주제 「강원교육의 교학과 수행의 고찰」
- 해국스님(남국선원 선원장)
- 제2주제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 제3주제 「한국불교 포교의 현상」
- 지광스님(능인선원 이사장)
- 기념촬영(오후 3:00)

제 3부 분과별 주제발표(오후 3:30 ~ 6:00)

- 제1분과 : 인도철학, 인도대승 이전 불교
- 임승택교수(동국대강사), 이종표교수(전남대철학과)

- 희찬스님(쌍계사 사집사), 일창스님(범어사 사교과)
- 원우스님(해인사 사교과), 심근스님(동학사 대교과)

제 2분과 : 종관 · 기신 · 유식

- 김성철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은정희교수(서울교대)
- 이평래교수(충남대 철학과), 혜현스님(삼선강원 사교과)
- 성중스님(백양사 사집과), 호선스님(동학사 사집과)

제 3분과 : 응용불교 · 선심리 · 비교불교

- 조현준교수(경북대심리학과) 이해숙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종우스님(운문사 사교과), 해각스님(해인사 사교과)
- 선현스님(법주사 치문과)

제 4분과 : 대승불교, 법화천태 · 밀교

- 노권용교수(원광대) 이병욱교수(고려대강사)
- 법광스님(해인사 사집과), 태원스님(봉녕사 사교과)
- 명우스님(동학사 사교과)

저녁공양(오후 6:00 ~ 7:00) 다과회(오후 7:00)

- 7월 13일(토) -

학술대회 총회(오전 8:00) 폐회식

전국강원연합

불교학술대회 조직위원회 055)931-3290, 931-1016 홈페이지 http://www.insca.or.kr